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99-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2019년 이후 국정지표 세부분석
- 응답자 특성별 비교

2020. 10. 14.

담당자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조사실무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응답자 특성별 국정운영평가 비교

국정지지율, 남녀 차이는 없어

진보성향 응답자는 국정운영 긍정평가 70% 상회, 보수성향 응답자는 30% 이하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에서 격주 1회 조사하는 국정운영평가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각 조사의 유효표본 수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이지만, 응답자 특성별 표본 수는 이에 못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표본 수 확보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각 월별로 조사결과를 통합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특성별 표본 수는 전체 조사의 표본 수에 비하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결과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월별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는 45% 수준에서 큰 등락 없이 유지되었다. 올해 4월~6월 코로나19 방역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국정지지율이 60% 초반대까지 올라갔으나 다시 하락, 7월부터는 다시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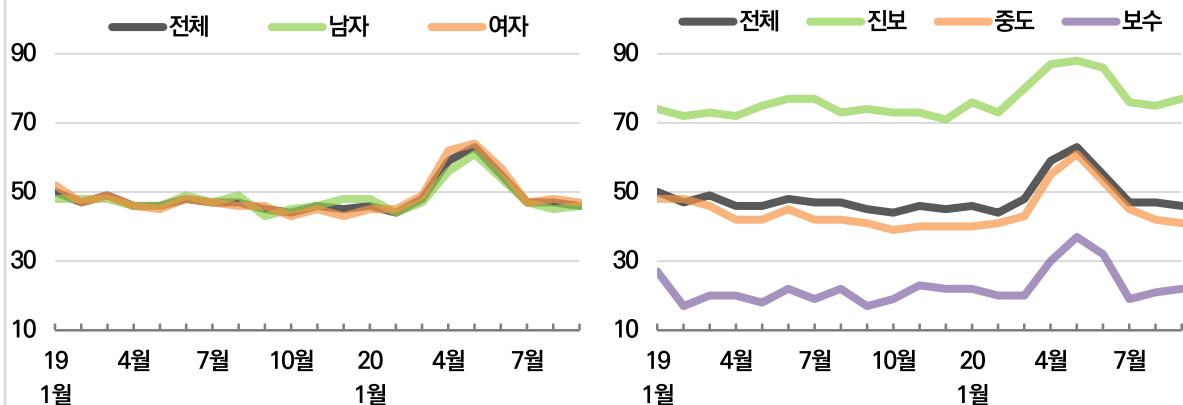
국정운영평가에서 남녀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반면 이념성향에 따른 국정운영평가 결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본인을 진보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월별 국정운영평가는 한 번도 7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반면 본인을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월별 국정운영평가는 올해 4~6월을 제외하면 한 번도 30%를 넘은 적이 없었다. 중도 성향 응답자는 전체 결과와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국정운영평가, 남녀 차이는 없지만 주관적 이념성향별 차이는 큰 편

진보성향 응답자는 2019년 이후 국정운영 긍정평가 70% 상회하는 반면

보수성향 응답자는 국정운영 긍정평가 30%에 그쳐

(단위 : %)



질문: 문재인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2019년 1~2월은 월 1회, 2019년 3월 이후는 격주 1회 1,000명씩 진행한 조사를 월 단위로 통합해 재계산.

응답자 특성별 표본 수는 전체 표본수보다 적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

응답자 수: 전체 응답자 수 기준 각 월별 1,000 ~ 3,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국정지지율 높은 연령대, 40대와 3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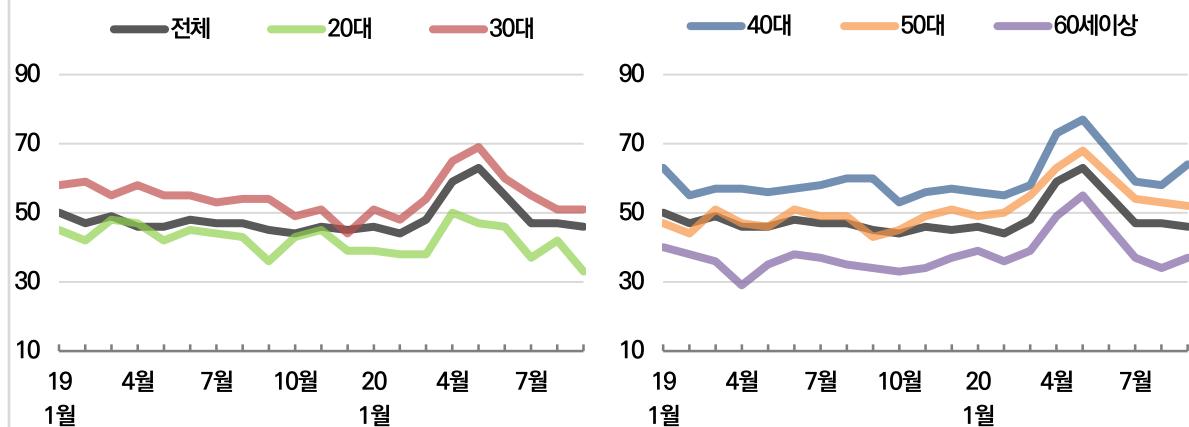
60세 이상은 국정지지율이 가장 낮고, 20대도 2020년 들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추세

연령대별 국정운영평가를 살펴보면 40대의 국정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40대는 단 한번도 국정지지율이 50% 이하로, 그리고 전체 평균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30대 역시 2019년 12월을 제외하면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여, 40대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이었다.

반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국정지지율은 전체 평균 이하였고, 2020년 5월을 제외하면 한 번도 50%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 20대도 2019년 12월 이후 일관되게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40대의 국정지지율이 가장 높고, 30대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 60대 이상의 국정지지율이 가장 낮고, 20대도 2020년 이후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

(단위 : %)



질문: 문재인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2019년 1~2월은 월 1회, 2019년 3월 이후는 격주 1회 1,000명씩 진행한 조사를 월 단위로 통합해 재계산.

응답자 특성별 표본 수는 전체 표본수보다 적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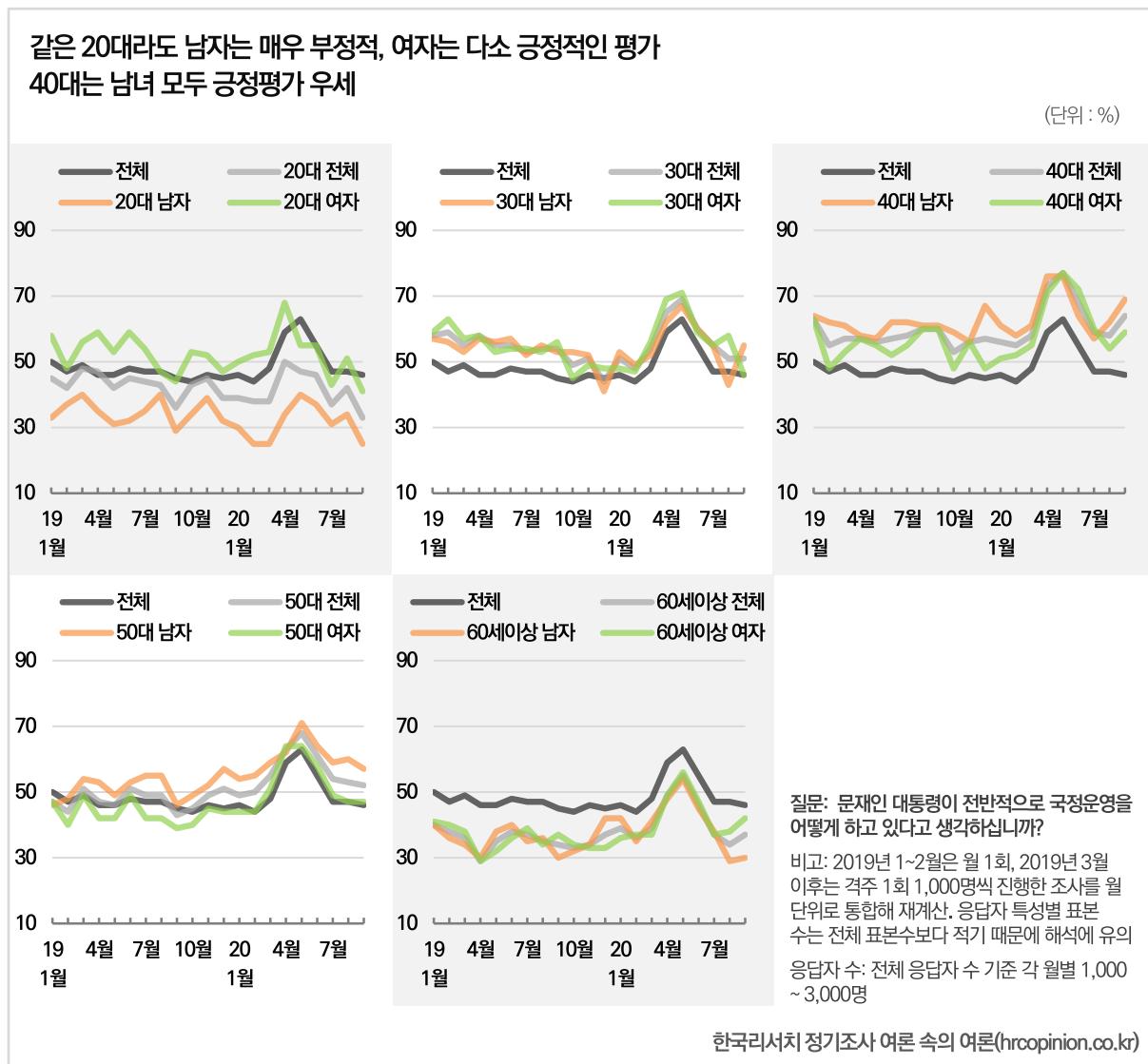
응답자 수: 전체 응답자 수 기준 각 월별 1,000 ~ 3,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남녀 격차가 가장 큰 연령대는 20대 60세 이상에서는 남녀 모두 부정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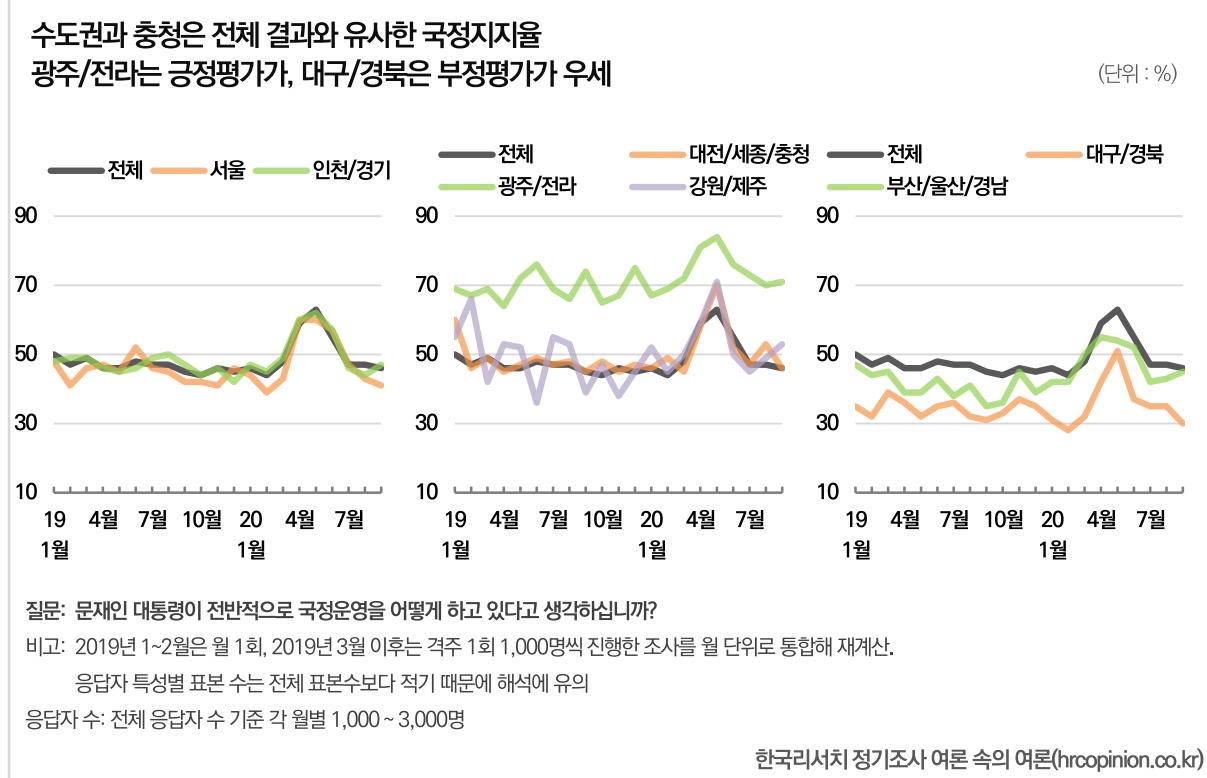
20대와 60대는 모두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측面에 속하지만, 세부적인 속성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60대는 남녀 모두 일관되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반면 20대에서는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20대 여자는 전체 국정운영평가 결과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 반면, 20대 남자는 매우 부정적이다. 남녀간 격차가 이처럼 크게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연령대는 20대가 유일하다.

국정운영에 가장 긍정적인 40대에서는 남녀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은 국정지지율을 보인다. 특히 40대 남자의 국정평가가 좀 더 후한 편이다.



수도권, 충청은 전체 결과와 유사한 흐름 광주/전라는 긍정평가 우세, 대구/경북은 부정평가 우세

지역별 국정운영 평가 결과는 통념에서 어긋나지 않은 모습이다.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광주/전라에서는 긍정 평가가 우세하다. 그 대척점인 대구/경북은 부정평가가 우세하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평가가 전체 평균을 밟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전체 결과와 유사한 흐름이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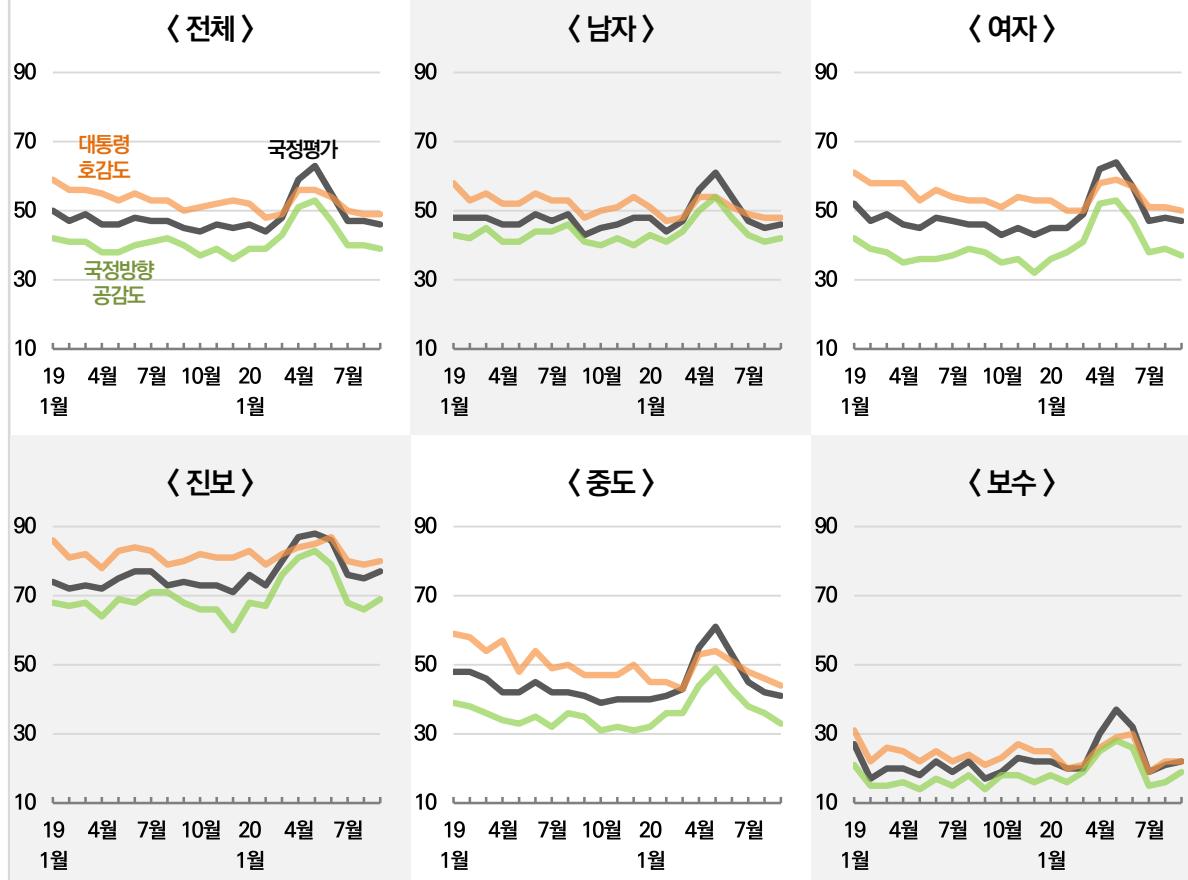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국정운영평가, 대통령 호감도, 국정방향 공감도 비교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와 같이 측정하는 지표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와 국정방향 공감도도 비교해 보았다. 2019년에는 대통령 호감도가 국정운영평가보다 높았으나, 2020년부터는 둘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국정운영평가는 4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2019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데 따른 결과이다.

국정방향 공감도가 국정운영평가나 대통령 호감도보다 낮은 것도 특징이다. 특히 여자, 중도 성향, 20~30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응답자 특성별 국정운영평가, 대통령 호감도, 국정방향 공감도 비교 – 성별, 이념성향별

(단위 : %)



질문: (대통령 국정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호감도) 국정운영 성과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마나 호감이 가십니까?

(국정방향 공감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2019년 1~2월은 월 1회, 2019년 3월 이후는 격주 1회 1,000명씩 진행한 조사를 월 단위로 통합해 재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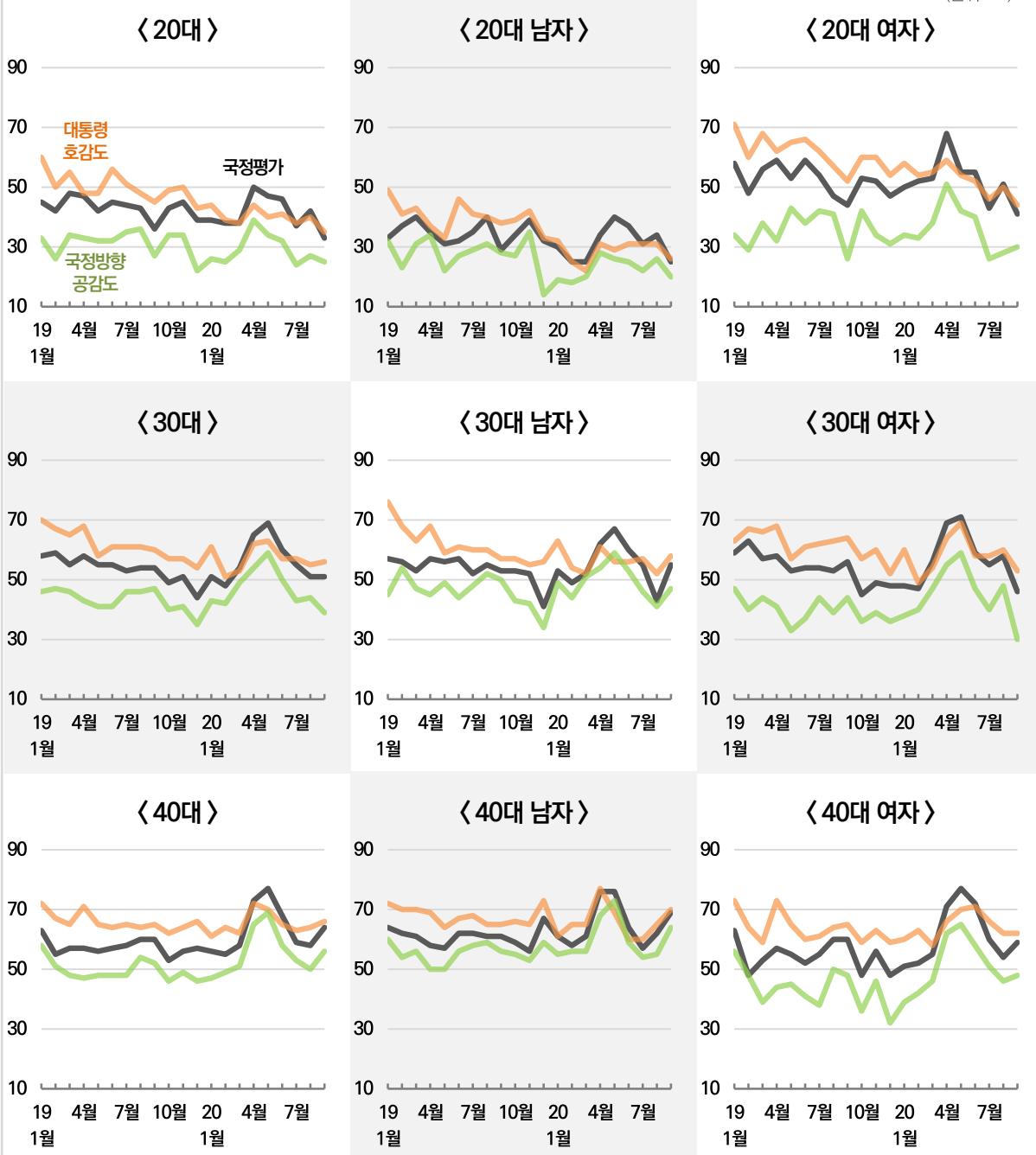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표본 수는 전체 표본수보다 적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

응답자 수: 전체 응답자 수 기준 각 월별 1,000 ~ 3,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응답자 특성별 국정운영평가, 대통령 호감도, 국정방향 공감도 비교 – 20대 ~ 40대

(단위 : %)



질문: (대통령 국정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호감도) 국정운영 성과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마나 호감이 가십니까?

(국정방향 공감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2019년 1~2월은 월 1회, 2019년 3월 이후는 격주 1회 1,000명씩 진행한 조사를 월 단위로 통합해 재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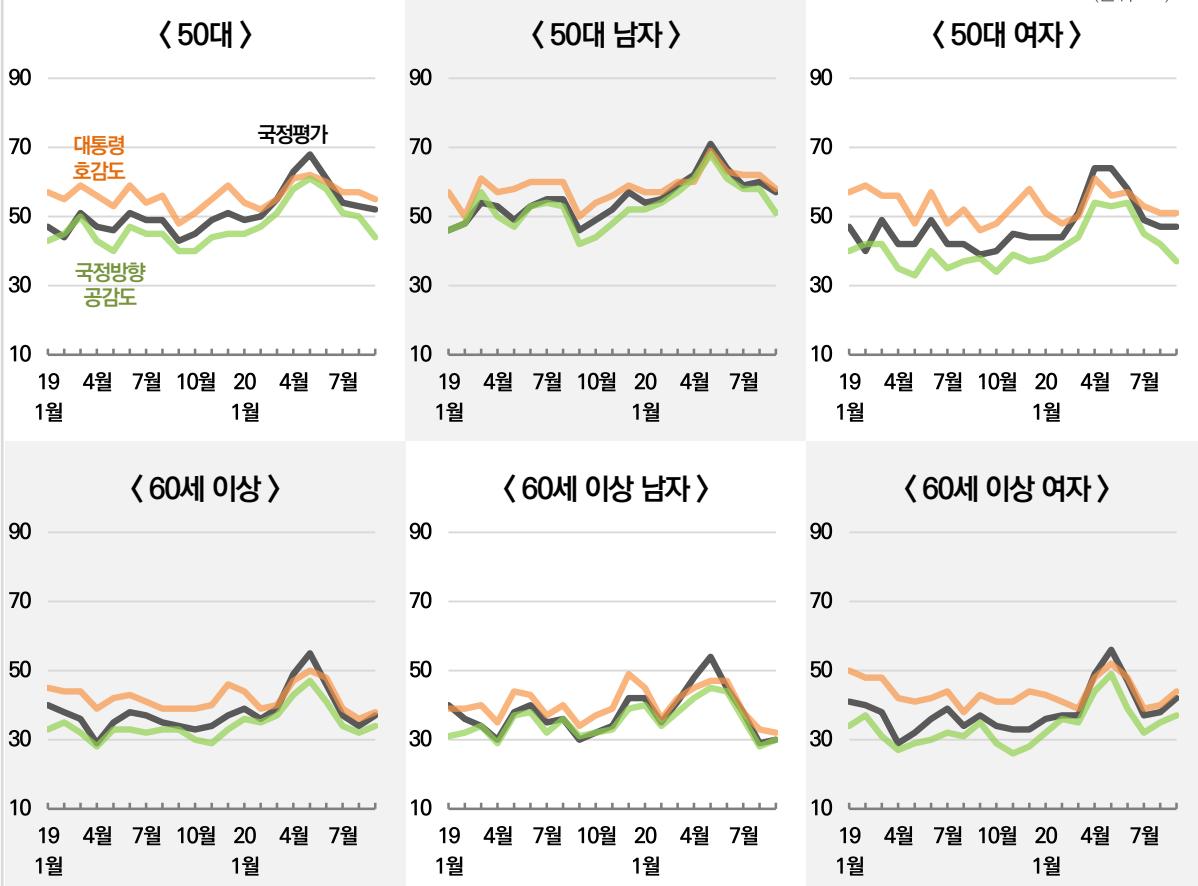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표본 수는 전체 표본수보다 적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

응답자 수: 전체 응답자 수 기준 각 월별 1,000 ~ 3,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응답자 특성별 국정운영평가, 대통령 호감도, 국정방향 공감도 비교 – 50대, 60세 이상

(단위 : %)



질문: (대통령 국정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호감도) 국정운영 성과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마나 호감이 가십니까?

(국정방향 공감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2019년 1~2월은 월 1회, 2019년 3월 이후는 격주 1회 1,000명씩 진행한 조사를 월 단위로 통합해 재계산.

응답자 특성별 표본 수는 전체 표본수보다 적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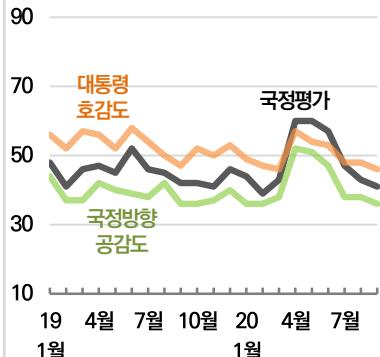
응답자 수: 전체 응답자 수 기준 각 월별 1,000 ~ 3,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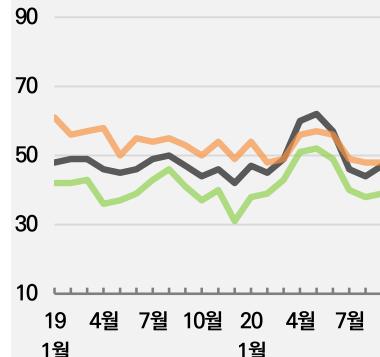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국정운영평가, 대통령 호감도, 국정방향 공감도 비교 - 지역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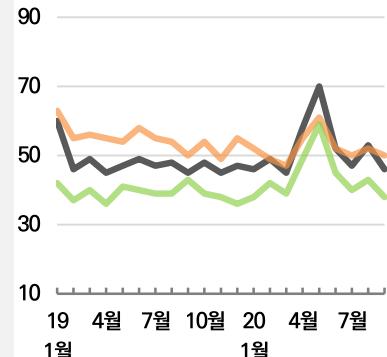
〈 서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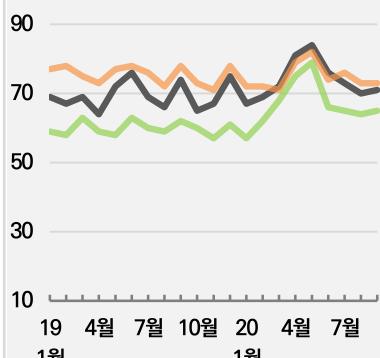
〈 인천/경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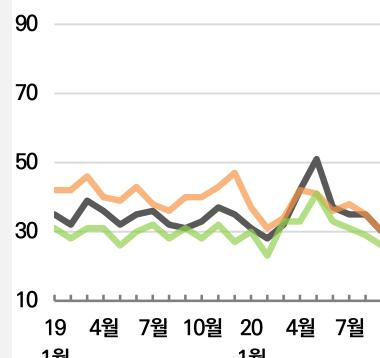
〈 대전/세종/충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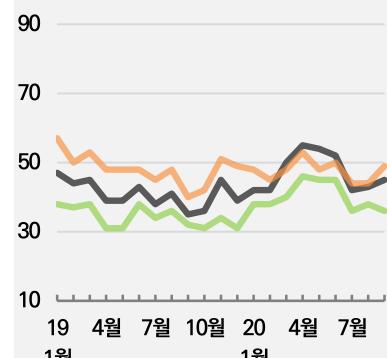
〈 광주/전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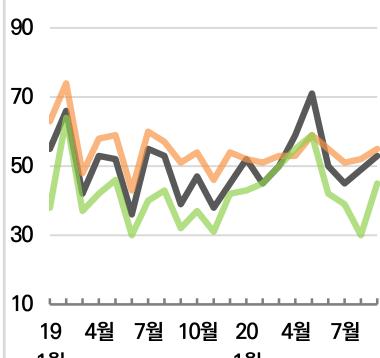
〈 대구/경북 〉



〈 부산/울산/경남 〉



〈 강원/제주 〉



질문: (대통령 국정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호감도) 국정운영 성과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마나 호감이 가십니까?

(국정방향 공감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2019년 1~2월은 월 1회, 2019년 3월 이후는 격주 1회 1,000명씩 진행한 조사를 월 단위로 통합해 재계산. 응답자 특성별 표본 수는 전체 표본수보다 적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

응답자 수: 전체 응답자 수 기준 각 월별 1,000~3,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20년 8월 기준 약 54만 명)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각 월별 1,000 ~ 3,000명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각 월의 전체 응답결과 기준,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pm 1.8 \sim 3.1\%$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2019년 1월 ~ 2020년 9월(2019년 1,2월은 월 1회, 이후는 격주 1회 조사)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

